【서식 5】

자기소개서(접수번호1)

소 속		직 위		성 명	

Ⅰ 교실에서 시작한 길

제 모든 업무의 뿌리는 아이들과 함께한 국어 교사의 시간입니다. ○○○에서 교사의 길을 시작하여 ○○ ○○중학교로 전근을 가면서 독서교육과 도서관 활성화에 힘을 쏟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4년 '중등문예백일장대회 지도교사상'을 받고 '독서교육영역 장학지도 우수교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매년 독서캠프를 운영하였고, 2017년 '인성교육실천사례 연구 발표대회'와 2018년 '교육자료전'에서 각각 2등급을 받았습니다.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 조직(2017), 2004년부터 15년 간의 부장교사 경험, 중등 인사정책개발 추진위원(2017~2020), 나이스현장자문단과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실무지원단,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 점검과 자유학기제 컨설팅 등의 활동은 학교 안팎의 경험을 나누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지금의 교감, 장학사, ○○○○○○의 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하나가 되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는 인성인권 우수학급을 운영하였고, 2014·2015년 자율동아리 'e-끌림'을 운영하며 학생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하는 경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의 역할은 아이들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경험을 마련해 주고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Ⅱ 새로운 역할이 주는 생각의 변화

한창 코로나 시기였던 2021년 3월, 저는 잔뜩 긴장한 마음으로 ○○○○중학교 교감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개학과 함께 순회 교사의 복무와 기간제 교사의 호봉 문제를 처리하고, 쏟아지는 공문을 결재하며 정신없는 첫 주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맡아온 업무와 다양한 컨설턴트 경험이면 충분하리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음을 곧 깨달았고, 교사로서 처음 교단에 섰던 마음으로 돌아가 학생 곁에서 다시 배우기로 하였습니다.

교감으로서 가장 중점을 둔 일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학교가 먼저 찾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복지우선사업'을 중점 운영하였고, 학생이 책과 가까워지도록 '독서교육'을, 자신의 길을 탐색하도록 '진로교육'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또한 학생이 학교의 일을 스스로 기획하고 결정해 보도록 '학생회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교감의 역할이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막힌 곳을 풀고, 교사가 수업과 학생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의 일을 조율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교감으로 일한 경험은 이후 모든 일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학교는 교장 한 사람의 결단만으로 움직이지 않고, 교사의 신뢰와 학생의 참여, 학부모의 이해가 함께 모일 때 비로소 움직인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Ⅲ 학교를 벗어나 학생을 지키다

2022년에는 ○○○○○○○에서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장학사로 근무하였습니다. 학교 밖에서 학교를 바라보며, 학생의 안전과 회복은 학교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고, 기관 간의 협력이 있어야 지켜 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생긴 뒤의 수습보다 예방과 연계에 힘을 쏟았습니다.

먼저 '합동 교외 생활교육'을 운영하여 학교 밖 생활까지 살피는 지도 체계를 마련하였고, 교원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학생 지원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과 경찰서 간 '상설협의체'를 운영하여 사안이 발생하면 기관이 함께 대응하는 구조를 다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학교장이 평소에 지역 기관과 소통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 저는 학교폭력과 아동학대가 모두 '학생을 어떻게 보호하고 회복시킬 것인가'라는 같은 질문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사안의 처리 절차를 아는 것만큼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마음을 살피는 일이 중요하였고, 사안이 학교 안에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돕는 평소의 신뢰가 가장 큰 예방책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Ⅲ 진로교육의 틀을 세우다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업무 담당 장학사로 근무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운영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의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진로교육의 방향과 지원 체계'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도 단위의 방향을 정하는 '전북 진로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학교 담당자 혼자서 알기에는 어려운 '진로체험'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기관과 '진로체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교로 연결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진로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및 '창업가정신 함양 교원 연수'를 열었고, 학생이 도전과 창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센터' 운영과 '창업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학교가 스스로 진로교육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창업교육·대학생 멘토 초청 진로멘토링'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학생과 학부모가 진로·진학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하는 '진로·진학 토크콘서트'를 기획·운영하였습니다.

이 2년 6개월은 진로교육이 한 부서 또는 개인의 업무가 아니라, 교육과정, 지역기관, 교원 연수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학교 전체의 일임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도 단위 정책이 학교 현장에 닿을 때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넓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업무 담당하며 늘 마음에 둔 것은 진로교육의 중심에 학생의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학교가 정해 준 길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흥미와 소질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아 가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험은 제가 학교를 운영할 때 진로교육과 교육과정을 하나로 이어 설계하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Ⅴ 지역과 교육을 잇다

2025년 9월부터 현재는 ○○○○○○○ ○○○○○○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 하나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학생을 어떻게 함께 키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로 학교장이 지역과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운영하고, 지역의 자원을 교육으로 연결하는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사 시절부터 이어 온 경험을 살려 '도서관 운영'과 '독서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배움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기초학력센터'와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의 상황에 맞추어 교육·복지·정서 지원을 하나로 잇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 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 자원봉사센터, 사례결정위원회,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외국인주민지원 시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며 교육의 관점에서 지역과 함께 복지·청소년·다문화 과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역과의 협력이 학교 교육을 풍부하게 하고, 교육의 성과가 다시 지역을 밝게 하는 '선순환 구조'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으로서 저는 학교의 요청을 듣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일을 합니다. 학교가 어떤 지원을 원하고 어떤 절차가 학교를 힘들게 하는지를 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업무를 줄이고 지역의 자원을 학교가 쉽게 활용하도록 하는 일이 학교장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Ⅵ 진안제일고에서의 다짐

교실에서 교사로, 학교에서 교감으로,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서 장학사로 지금의 ○○○○○○에 이르기까지 저는 학교 안과 밖의 일을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진안제일고의 학생에게는 스스로 선택하고 경험하는 교육을, 교사에게는 업무에 치이지 않고 수업과 상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학부모와 지역에는 학생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라는 믿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교육복지 업무에서 익힌 안전망 구축의 경험과 지역 기관과의 협력 경험을 학교 운영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특히 교감으로서 익힌 학교 살림, 진로교육 정책을 만들며 쌓은 안목, 지역과 함께 교육을 설계해 온 교육지원청의 경험을 학교 현장에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지역을 지키고 지역이 학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선순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동체와 소통하며,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